

# 金海地方出土 青銅遺物

朴 敬 源

金海地方은 先史時代의 遺蹟이 豊富하면서 靑銅遺物에 限하여는 그 資料가 稀貴한 地域이기도 하다.

金海 會峴里貝塚에서 發見된 貨泉과 一九三三年 同貝塚의 甕棺에서 發掘된 細形銅劍 三、銅製槍鎗 一、銅鏢 一、碧玉管玉等の 一括遺物과 ① 數年前 長有面 茂溪里의 支石墓에서 精美한 磨製石劍과 같이 出土된 銅鏢 數點② 그리고 酒村面出土라고 傳하는 銅鏢 一③ 以外에는 이렇다 할 資料가 없던 次에 出土狀況이 比較的 明確한 一括遺物이 偶然히 發見되어 새로운 資料를 하나 더 하게 된 것은 頗 多幸한 일로 생각 되므로 여기에 紹介하기로 한다.

## 出土經緯 (圖 1, 2)

昨年(一九六九) 九月頃에 酒村面 良洞里 歌谷部落에 사는 정봉기(當時 金海中學 三學年 在學)와 이웃 洞里에 사는 김상은 兩人이 정봉기의 집 뒷 山의 土砂中에 土器의 一部가 露出된 것을 보고 그 周邊을 探掘하여 다음과 같은 遺物을 發見하였다.

- 一 銅製劍把頭飾
- 一 方格規矩四神鏡
- 一 鐵劍
- 二 鐵鏢
- 二 土器

發見者들의 말을 綜合하면 土器는 二M 가량의 距離를 두고 그 兩端

과 中間地點에서 各各 一個式 나왔고 鐵劍等 四點은 右端 土器 밑에서 그리고 銅鏢은 鐵劍 周邊에서 鏡面을 위로 하여 破片이 圓形으로 散布되어 있었다 하며, 把頭飾도 鐵器 附近의 土中에서 採集하였다 한다. 이 곳은 金海邑에서 西쪽으로 一〇KM、進禮面을 거쳐서 進永으로 通하는 道路와 長有面으로 가는 길의 分岐點 近處인데 여기서 長有面 柳下里貝塚으로 二KM、茂溪里까지는 四KM의 距離이다.

이 地域은 金海平野의 西端에 位置하여 西北으로 三〇〇M—五〇〇M의 分水嶺을 등지고

거기에서 세 가닥의 山줄기가 東南 金海平野 쪽으로 손가락 같이 뻗어 내려 높은 곳은 八〇M 前後의 丘陵이 되어 넓은 平野 가운데에 마치 海中島와 같은 景觀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丘陵의 東南 斜面은 대개 農家가 모여서 村落을 이루고 그 周圍에는 例外없이 貝塚 支石墓 같은 遺蹟이 남아 있는 것이 이 地域의 特色이다.

道路를 끼고 十戶 가량 되는 歌谷部落의 뒷 山 標高二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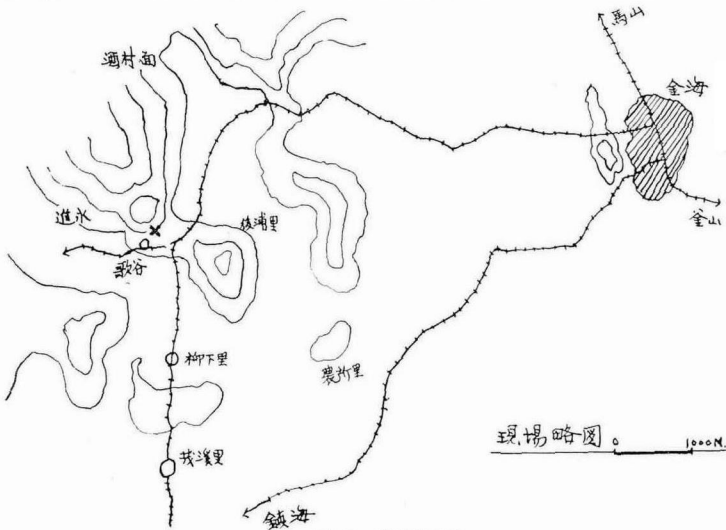


圖 6. 現場略圖

M二三〇M의 緩傾斜地에도 小規模의 土壙墓가 散在하고 洞里 앞 丘陵의 東南斜面에도 넓은 貝塚가 있음이 이번에 새로 確認하였다④.

七、八年前에도 大水 뒤의 土壙의 一部가 露出되어 한 때 盜掘輩가 들끓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 洞里 뒷 산에는 破損된 土器片이 無數히 흩어져 있다.

現場은 發見者인 兩人的 案内로 筆者가 調査한 昨年 十二月頃까지도 其의 變動이 없었다.

이곳은 昨年 여름의 集中暴雨로 斜面의 一部가 무너져서 土器의 一部가 露出되어, 이 遺物을 發見하는 契機가 된 것인데 이 遺物들을 採掘하느라고 攪亂된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 그 原狀을 알아 볼 수는 없게 되었으나, 그곳이 土壙으로 된 埋葬址이며 이 遺物들도 그 무덤의 副葬品인 것은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遺物中에서 銅鏡은 이미 二〇餘片으로 破損되었으나 多幸히 完全收拾되어 把頭飾과 같이 여러 손을 거쳐서, 釜山の 某收藏家에 들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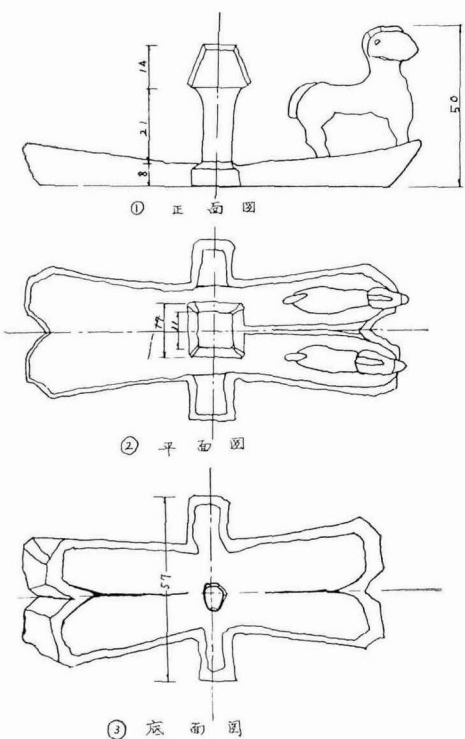


圖 7. 銅製劍把頭

게 되었고, 鐵製品 四點은 發見者들이 保管하고 있다. 土器 三點中比較的原形을 갖춘 一點은 正房기가 自己 집에 갔다 두었다고 하나, 어는세 없어져서 筆者는 볼 수 없었으나 두 사람의 말을 綜合하면 목이 잘룩한 圓底壺形土器였다고 한다.

銅製把頭飾(圖 3 圖 7)

十字形의 中央部에 裝飾鈕가 凸出한 形式인데 特異한 것은 十字形의 長軸部가 複式으로 되었고, 그 先端에 四頭의 馬形彫像이 붙은 珍貴한 形態로 構成된 것이다.

- 長軸長 一〇五 mm
- 短軸長 五七 mm
- 鈕 高 四三 mm
- 馬 高 五〇 mm

全體를 한꺼번에 鑄成 한 것인데 지금 表面이 軟綠色으로 銹化하여 마치 玉과 같은 光澤이 아름답고 네마리의 말도 素朴하나 形體의 要所를 잘 把握한 表現이다.

把頭飾에는 石製 銅製 被銅石製의 三種類가 있고, 그것이 磨製石劍 銅劍 또는 鐵劍의 把頭에 裝着한 것으로 特히 滿洲 韓半島에 그 分布가 뚜렷한 遺物인 것이 이미 學界에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⑤.

現在까지 國內에서 發見 된 것만도 五〇例가 넘을 것으로 推測되 는바 其中에는 石製把頭飾·鈕狀凸出部의 斜面에 素朴한 馬形이 陰刻된 一例가 있을 뿐 이와 같이 精巧한 例는 일찍이 보지 못하였다. 把頭飾도 이 程度가 되면 發達의 極限에 到達한 느낌이 없지 않다⑥.

出土地	材料	形式	伴出遺物
釜山	石	枕形	磨製石劍
黃州	銅	十字形	銅劍 銅銼 五銖錢
平壤	銅	同 右	銅戈 方格四鈕葉紋鏡
大同	銅	十字形에 方形鈕	銅劍 內行花紋鏡
金海	銅	同 右	鐵劍 鐵銼 方格規矩四神鏡

國內出土의 많은 遺物中에서도 그 出處가 明白하고 또 그것이 使用된 時期에 對하여 關聯있는 遺物과 伴出한 것은 表의 數例에 不遇하다. 이렇게 一覽表를 만들어 보면 把頭飾의 發達過程과 그 年代에 對하여 大體 하나의 限界를 잡을수가 있을듯하다. 이러한 意味에서도 注目할 만한 遺物임에 틀림없다.

### 銅 鏡(圖 4)

銅鏡은 直徑 二〇cm 鏡面의 反轉度는 鏡端에서 四、五mm에 達하는 大形으로 二〇餘片으로 破損되었으나 接合하면 거의 完形을 볼수 있다. 지금 缺失된 小片도 出土以後 여러 손을 거치는 동안에 紛失된 것이다. 鏡背에는 一部 酸化된 곳과 綠銹와 鐵銹의 얼룩이 몇군데 있으나, 出品 特有的 鉛黑色 光澤이 아름다운 古物이다.

鏡背內區에는 四葉鈕를 中心으로 한 方格內에 十二의 圓乳와 十二支의 文字를 浮刻하고 內區에는 方格에서 四出한 T字形에 對하여 L字形을 또 方格의 四귀에 對하여는 V字形을 配置하고 그 L·V字形 사이 사이에 八개의 內行八花文乳座와 十二의 禽獸文을 빚틈없이 線浮刻하였다.

이 圖像들은 方格內 十二支의 子午線을 基準으로 하여 靑龍 白虎 朱雀 玄武의 神獸가 東西南北의 順으로 配置되어 있으나 이 밖에 남은 三足鳥 蟾蜍같은 여러 圖像들이 어떤 意味에서 어떤 順序로 表現된 것인지는 잘 理解가 가지를 않는다.

外區는 櫛齒文帶 鋸齒文帶를 두른 다음 넓고 두꺼운(四、五mm) 外緣部에는 唐草文化한 流雲文이 洗練된 曲線을 보여주고 있다.

銘帶는 內區와 外區 사이에 있고 거기에는 整美한 漢隸의 銘文 二八字가 있는데 一部는 酸化되고 또 이러한 銘文에 흔히 볼수 있는 省劃이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이 判讀할 수 있다.

尙方佳竟眞大○上有仙人不知老渴次玉泉汎食棗浮由天下傲四海

銘文中 眞大○는 「好」 또는 「巧」 어는 쪽이라도 無妨할 것이므로 銘文은 거의 完全하다 하겠으며, 銘文中의 첫句 「尙方佳竟眞大(好)」는 이

銅鏡이 漢代 尙方官工의 製作品임을 表示하고 있다. 上有山(仙)人: 以下는 長壽無量이란 仙人들이 목 마르면 玉泉을 마시고, 飢하면 棗를 먹고, 天下에 浮由(遊)하고 傲(遊)四海하는 仙人生活를 描寫하여 이 銘文이 있는 鏡을 服用하는 者 亦是 萬壽長命한다는 뜻으로 解釋된다.

이와 같은 銅鏡은 所謂 「方格規矩四神鏡」이란 것으로 王莽 新을 中心으로 한 前漢末에서 後漢까지의 盛行한 鏡式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 出土한 같은 樣式의 古鏡만도 十餘面이 될 것으로 짐작되나 其中에서도 本鏡과 꼭 같은 것으로는 다음의 二面이 있는데

富田晉二舊藏 方格規矩四神鏡 一一·八cm  
平壤附近出土 新尙方作方格規矩四神鏡 一二·二cm ⑦

後者에는

「新有善同出丹陽……」의 銘文이 있어서 이것이 王莽의 「新」時代의 것임을 알 수 있는 作品이다.

이 兩鏡과 比較한다면 鏡의 形態나 鏡背의 文樣 등이 거의 同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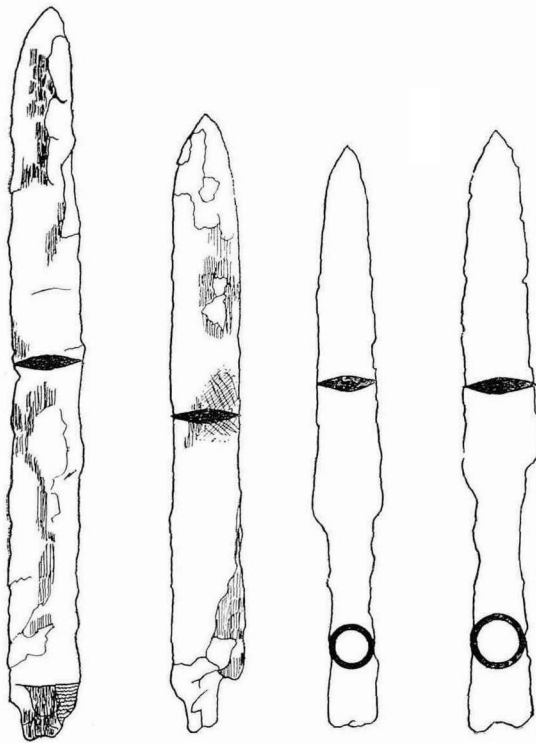


圖 8. 鐵劍鐵鉞

本鏡亦是 같은 時期의 尙方 製品임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兩鏡 사이에 小異가 있다면 本鏡에서는 道家의 思想이 銘文에 나타났을 뿐 아직 圖像上으로 表現되지 아니한 데 比較하여 前記 新尙方鏡에 仙人이 다른 禽獸文에 섞여서 造形上으로 表現되어 있다. 그리고 前記 兩鏡의 鏡背文樣이 다 같이 本鏡보다는 形式化한 面이 보이므로 어느모로 보든지 本鏡이 前記「新尙方鏡」보다 年代가 앞설 것 같이도 생각되나, 大體로 紀元一世紀頃의 製品으로 잠으면 큰 錯誤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鐵劍 鐵銚(圖 5·8)

鐵劍 鐵銚等 鐵製品 四點은 土壙의 東端 土器 밑에 나란히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

鐵劍 二柄은 보는 바와 같이 길이가 다를 뿐 꼭 같은 形態로 만드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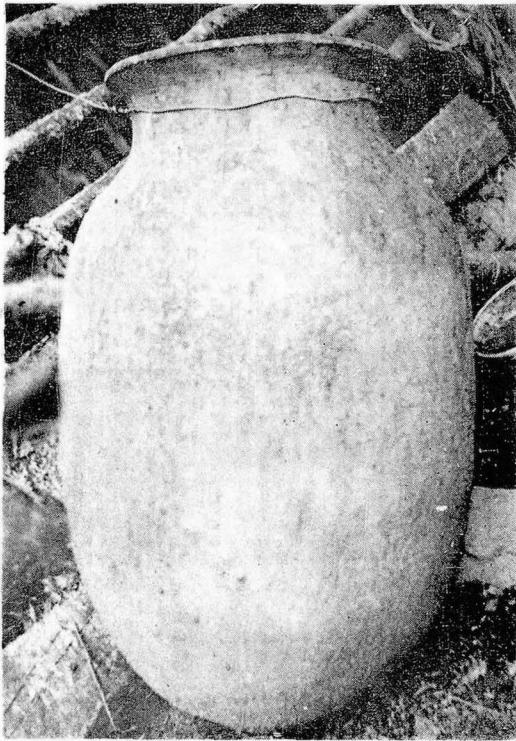


圖 9. 土 器

鐵劍(一) 長 三六·五 cm 幅 三五 cm 鐵劍(二) 長 三〇·五 cm 幅 三五 cm

鋒部의 斷面은 납작한 菱形으로 「鎬」는 뚜렷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丸鎬」라고 할 수도 없을 듯하다.

칼집(劍鞘)은 나무로 만들어졌던 모양으로 劍(一)에는 鋒部의 兩面과 莖部에 木理가 뚜렷이 남아 있고 莖部의 右半部에 칼자루(劍柄)를 묶었던 가는 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劍柄에 裝着한 狀態를 짐작할 만하다. 鐵劍(二)에도 一部 劍鞘의 木質 흔적이 보이고 또 그 鋒部의 中央에는 무슨 織物文樣 같은 것이 一部 남아 있다.

鐵銚(一)(二)도 그 鋒部의 形態는 鐵劍과 다른 點이 없고 자루를 끼우는 鑿部는 鐵片을 말아서 圓筒形으로 만들었는데 接合部가 걸치지 않아서 매끈하게 製作되어 比較的 좋은 鍛造 手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鐵銚는 圖面에서 보다시피 그 輪廓만으로는 銅銚와 區別할 수 없을 정도로 그 外形이 많은 點이 눈에 띄인다.

鐵銚(一) 長 二九·五 cm 幅 三·五 cm

鐵銚(二) 長 二八·八 cm 幅 三·〇 cm

土 器(圖 9)

이 土壙에 副葬되었던 土器는 대략 三個인데 한데 二個는 처음부터 原形을 알 수 없을 정도로 破損 되어 있었고, 一個는 거의 完全하여 發見者인 정몽기가 자기집에 갔다 두었으나, 어느새 없어졌다 함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 土器는 목이 잔뜩하고 底面이 둥근 壺形으로 높이는 二〇 cm 정도였다고 한다.

筆者가 近處에서 많이 散布되어 있는 다음 四種類의 各種 土器片中에서

- ① 軟質赤褐色無文土器
- ② 軟質靑灰色土器(捺打文)
- ③ 赤褐色磨研土器(極少數)

④ 新羅土器

그 壺形土器 같은 것은 어느 것이냐는 質問에 對하여 發見者 두 사람은 서슴치 않고 ②의 土器片을 指摘하였다. 寫眞의 土器는 七—八年前 이 部落 앞을 지나다가 그곳 農家에서 小便器로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出處를 물었더니 뒷 산에서 나왔다고 하므로 寫眞을 찍어 두었던 것인데 높이는 七〇cm 가량의 靑灰色 無文土器였다고 記憶하고 있다.

지금 이 部落 뒷 산에서 採集되는 土器破片中에도 같은 質의 大形土器片이 섞여 있는 것으로 봐서 어쩌면 이 一帶의 埋葬地에는 土壙墓以外에 甕棺墓도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附記하여 後日의 調査를 기다리고져 한다.

以上の 遺物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洪水에 依한 偶然한 發見이기는 하나 그 出土地點이 確實하고 또 多幸히도 그 現場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原狀을 明確히 把握하지는 못하였으나 大體로 同一한 土壙墓에 副葬되었던 一括遺物임을 確認할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 나온 銅鏡은 그 自體에는 紀年銘이 없으나 그 것이 西紀 一世紀頃에 盛行한 「方格規矩四神鏡」으로 其中에서도 標式이 될 만한 作品임은 前述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樣式의 銅鏡이 우리나라에서는 樂浪의 故地以外的 地域에서 發見되었다는 것을 아직 듣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그것이 精美한 靑銅製品이나 鐵製武器 土器等과 같이 土壙墓에서 出土하였다는 點은 더욱 重要な 意義를 內包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一括遺物의 앞으로 우리나라 古代墓制의 問題나 大陸文物의 交流關係 또는 이 地方 初期金屬文化의 樣相을 究明하는 데에도 重要な 資料가 될 것을 期待한다.

이 一括遺物은 出土以後 分散되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轉轉하는 過程에서 엉뚱하게 銅劍二柄이 여기에 使乘附加되는 混線狀態를 비저냈다. 筆者는 遺物의 行方을 追求하는 同時에 出土現場을 數次調査하여 그 銅劍이 本一括遺物과 關係없는 것이고 中間 商人들이 任意로 附加한 것임을 確認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 때문에 意外的 時間과 勞

力을 消費하게 되어 이제 겨우 이 一括遺物을 完全 復原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기뻐하는 바이다.

- 註一、朝鮮古文化綜鑑 第一輯 P、八七
- 二、國立博物館 靑銅遺物圖錄 P、一四
- 三、南朝鮮의 漢代遺蹟 P、九一 圖版四五
- 四、酒村面 後浦里 砂德部落. 東西로 五〇〇M 거리에 있는 두 丘陵에는 農所 里貝塚과 柳下里貝塚이 있다.
- 五、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P、七五
- 秋山進午 中國東北地方初期金屬文化之樣相 考古學雜誌五三卷四號
- 六、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P、七七
- 七、關野貞 樂浪郡時代の 遺蹟 P、三三〇
- 梅原末治 鑑鏡研究 P、一五七、第一圖
- 朝鮮古文化綜鑑 第三卷 P、八、圖版五六

# 新羅鳥形土器小見

金 元 龍

新羅土器中에 보이는 動物形土器가 特別한 뜻을 가진 儀器인 것이라 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해서는 이미 小文을 發表한 바 있지만 ① 그들은 모두 洛東江下 流流域인 農業地帶伽耶地方에서 나왔다. 그런點에서 動物土器는 伽耶의 特色인 文化的 所産이고 農耕이나 農耕社會와 무는 關連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런데 動物形土器中에서 가장 數가 많은 것이 鳥形이며 現在 알려져 있는 것만도 最少 一〇개는 넘는다. 이들 鳥形土器가 表示하는 새는 모두 부리가 넓으며 오리 아니면 鵝鳥라고 생각되는데 日本小倉蒐集品인 一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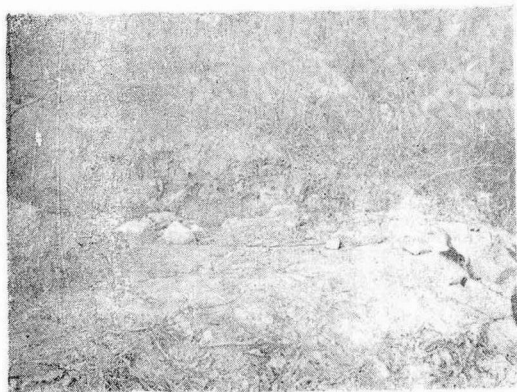


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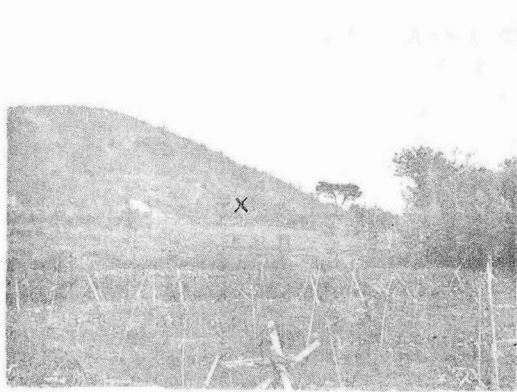


圖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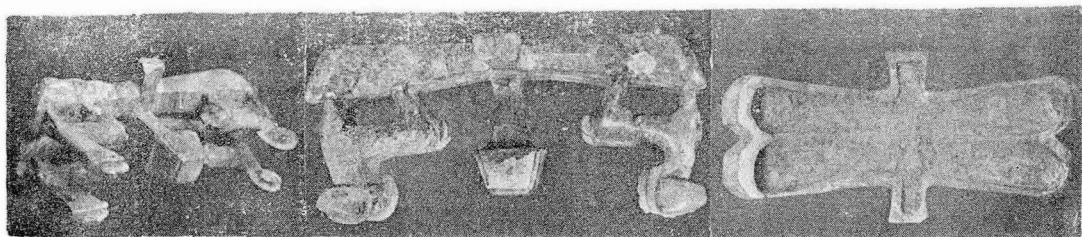


圖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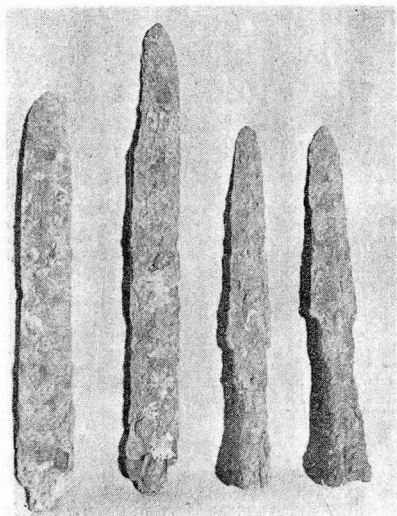


圖 5



圖 4